

‘위기에 직면한 닭고기 산업’ 현황과 대책은?

소비심리 위축·공급과잉 심화 ‘수급 불균형’
 육계 사육농가·계열업체 줄도산 우려 ‘비상’
 업계 “주저앉을 순 없다” 타개책 모색 나서



박정완 기자
 축산경제신문

1. 닭고기 업계 수급불균형 심각 ‘위기 직면’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친 각종 악재로 인해 국내 닭고기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소비 대비, 생산과잉으로 육계가격이 폭락해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병아리 생산으로 육계 공급과잉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 전체 육계 도계실적은 3억 9천851만1000수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육계협회 회원사 12.2%, 비회원사 21.6%)했다.

도계물량의 이 같은 증가세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기존 업체들이 물량을 늘린 것과 신규업체(신규도계장)의 진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닭고기수입량도 늘어나 공급과잉을 부추겼다. 올해 7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6만900톤보다 31% 증가한 7만9800톤을 기록했다. 이는 할당관세 인하와 미국의 돼지열병 발생, 브라질 수출가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향후 물량확보가 힘들어 질 것에 대비해 미국과 브라질의 수입물량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침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육계 계열화사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주문량은 올해 1~2분기의 고병원성

AI 및 세월호 침몰사고 영향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육계협회 회원사들의 주문량은 2013년 전년대비 6.4% 증가했지만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치 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시차로 인해 저조한 주문량을 보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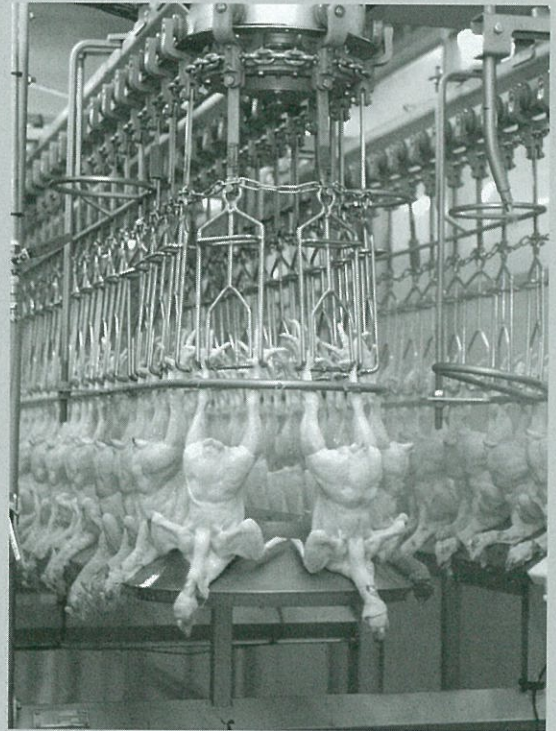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 보니 냉동비축물량도 전년에 비해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월 3일 기준 닭고기 냉동비축물량은 전년보다 72.3% 증가한 1,058만 마리로 나타났다.

이처럼 닭고기 도계·냉동비축·수입량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아지는 수급불균형 현상으로 산지 육계시세(육계협회 기준)는 7월 전년대비 2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육계 계열화사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불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었다. 지난해 1분기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청정원종 등 원종계 회사 4개사는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육용원종계를 감축(자율도태)하고, 연간 원종계 수입량도 당초 계획물량인 21만3500마리에서 16만2000수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원종계 감축은 종계가격 상승과 원종계 4사의 종계 배부율 증가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2012년 마리당 2,500원 수준이던 종계가격은 2013년 3,800~4,000원으로 올랐고, 2014



도계되는 모습

년에는 4,300~4,500원까지 치솟았다. 원종계 4사의 종계 배부율도 2012년 68.2%에서 2013년 84.4%, 2014년에는 97.1%로 급증했다.

2. 향후 전망도 어두워 '갈수록 경영 악화'

문제는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종계 입식량이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일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높은 입식 열기로 전년 수준의 높은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들의 병아리 입식열기가 고조돼 종계의 환우 및 생산연장 계군이 50만

수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종계 환우와 생산연장의 영향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2015년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잠재력 대비 육계 발생률도 도계장의 신규진입 및 도계능력 확대에 의한 병아리 입식 열기 확산으로 2012년 86%에서 2014년에는 91%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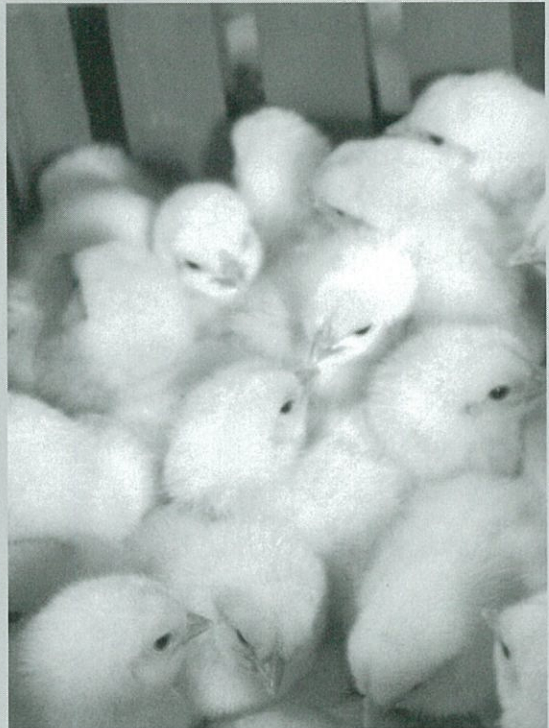
단기적 전망으로는 9월 육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2.4% 증가한 8,290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한 6,618만 마리,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30.7% 늘어난 1만976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9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월대비 20.8% 증가한 9,103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닭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육계 가격 또한 전년대비 20~30% 가량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도계장의 입식열기로 종계환우와 생산연장이 발생해 내년 상반기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냉동비축물량 적체 및 수입물량 급증, 소비 침체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육계 시세 약세가 지속돼 내년 상반기까지 육계 계열화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 없나?

육계 계열화사업자들은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자 일반사육물량



육계병아리

을 수매해 냉동비축에 들어갔지만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냉동비축물량 처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는 “AI로 어려움을 겪었던 육계사육농가의 안정을 위해 육계 수매 비축에 들어간 만큼 냉동 닭고기 처리를 위한 군납추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선 환우계군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마련, 추진된다. 지난 9월 5일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는 68주가 넘는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공급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이 조항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상 명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단기적 전망으로는 9월 육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2.4% 증가한 8,290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한 6,618만 마리,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30.7% 늘어난 1만976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9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동월대비 20.8% 증가한 9,103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닭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육계 가격 또한 전년대비 20~30% 가량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닭고기 유통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비싸게 팔아 유통상인들만 배불리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행정지도 등 정책 차원의 조치와 함께 닭고기 유통구조를 근본적 개선할 수 있는 닭고기 유통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단속도 추진된다. 무허가 종계장은 전국적으로 70~80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의 요청에 따라 올해 7월 초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종계장 14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무허가 종계장은 생산물량의 예측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육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AI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무허가 종계장이 더 이상 종계업계에 존재할 수 없도록 관계당국에 추가 단속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수입 닭고기 대책으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주도의 수입 닭고기 대량판매처 등에 대한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정부, 사육농가, 육계계열화업체, 소비자, 학계, 농협 관계자들로 구성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는 회의를 갖고 수급조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수급조절위원들은 원종계 잠정쿼터가 실패한 만큼 종계 잠정쿼터를 운용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종계 쿼터제를 계열화사업체 위주로 할 것인지 농가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적 수급조절 대책으로 생계시세가 사육원가 이하일 경우 잉여 생계의 일정 물량(5~8% 사이)을 정부에서 구매해 비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에 구매·비축자금 100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